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25%로 하향 조정
- 美, 3/4분기 경제성장률 2% 하회 전망

경영 노트

- 일본 기업들의 '기술 신화' 붕괴와 시사점

사회 트렌드

- 국내 기업 투명성, 30개 국 중 21위
- '귀족녀' 등장

저널 브리프

- 아베노믹스의 과제와 한계

洗心錄

- 카산드라의 예언

□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25%로 하향 조정

- IMF는 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말 4.3%에서 4.25%로 소폭 하향 조정함
 -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2005년 이후 시작된 세계 IT 경기 회복으로 2006년에 들어 6%대의 성장률과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 주식 시장의 랠리 등의 전형적인 경기 확장 국면을 보였다고 언급함
 - 그러나 최근에 들어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어 2007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 특히 IMF는 수출/GDP 비중이 약 36%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에 이어 2위의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함
- 기업들은 내수 부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 경기마저 약화되는 내외수 동반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저성장기의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美, 3/4분기 경제성장률 2% 하회 전망

- 국제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올해 2/4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연율 환산 2.6%로 1/4분기의 5.6%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됨
 - 국제 투자은행들이 3/4분기에도 추가적인 성장 둔화를 예상하는 것은 유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 하강에 따르는 가계의 구매력 감소, 제조업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동반 하락하여, 우리 수출의 신장세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둔화될 우려가 높음

□ 일본 기업들의 ‘기술 신화’ 붕괴와 시사점

-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들의 ‘기술 신화’에 문제점이 발생
 - 올해 들어 도요타, 소니, 캐논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서, 기술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신제품 생산과 출시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금전적 손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 미국식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비용 절감에 주력했던 일본 기업들의 체질 개선 혁신이 기술력을 저하시켰다는 분석이 제기
 -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사외이사제도 등 미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한 기업보다 일본식 경영 방식을 고수한 기업의 실적이 높았다고 분석함
 - 일본 기업들이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미국식 경영방식을 따르면서 ‘혁신’ 문화가 저하됐고, 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 부문의 생산기지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품질 관리에 차질을 빚음
 - ※ 실제 소니는 미국식 주주경영주의로 전환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근 출시가 지연된 워크맨은 말레이시아 생산 제품임
- 기술력에 기반한 ‘품질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선진 경영방식의 도입은 토착 기업문화와의 현실적인 조화가 뒷받침됐을 때 효과를 발휘함
 - 국내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 넛크래커(Nut-Cracker)* 돌파를 위해서는 품질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을 통한 철저한 기술력 검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원가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발생도 가능함

< 2006년 일본 주요 기업들의 리콜 및 제품 출시 지연 사례 >

기업	시기	내용
도요타	1월~7월	미국시장 62만 8,000 건 리콜 및 50만 건 추가 예상
	8월	미니밴 ‘시에나’ 등 개발·생산기간 6개월 연장
소니	8월	리튬이온전지 애플(180만 개), 델(410만 개) 리콜
	9월	플레이스테이션(PS3), 디지털 워크맨 출시 연기
캐논	9월	복사기 187만 대 리콜
마쓰시다	9월	파나소닉용 노트북컴퓨터 배터리 6천 개 리콜

*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경쟁에서,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 국내 기업 투명성, 30개 국 중 21위

-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올해에도 하위권인 21위에 머무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6 뇌물공여지수(BPI)'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10점 만점에 5.83점을 획득, 전체 30개 국 중 21위를 차지
 - 1999년에는 19개 국 중 18위(3.4점), 2002년에는 21개 국 중 18위(3.9점)를 기록했던 과거보다는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바닥권임
- 순위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할 경우 우리는 홍콩(6.01), 이탈리아(5.94), 사우디아라비아(5.75), 브라질(5.65), 말레이시아(5.59) 등과 함께 제3그룹에 속함
 - 제1그룹에는 1위를 차지한 스위스(7.81)와 호주(7.59), 영국(7.39), 미국(7.22), 일본(7.1) 등이, 최악인 제4그룹에는 꼴찌인 인도(4.62)와 대만(5.41), 터키(5.23), 러시아(5.16), 중국(4.94) 등이 포함

□ '귀족녀' 등장

- '된장녀'에 이어 '귀족녀'가 등장해 화제임
 - 된장녀란 소비지향적이고 명품을 좋아하지만 경제력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들을 말하는데, 귀족녀는 부유층에서 태어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도 좋은 미모의 여성을 말함
 -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사치를 하는 된장녀에 비해 귀족녀들은 명품 소비에 걸맞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된장녀가 추구하는 실제 모델이며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부류라는 차이도 있음
- 부모의 경제적 도움과 교육적 혜택을 받은 귀족녀들은 한달 쇼핑비로 7~800만원 정도를 쓴다고 함
 - 귀족녀들은 자기 과시 목적이 아닌, 가격보다는 질, 품질 대비 가격의 합리성을 고려해 명품을 산다는 입장임
 -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현재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눈초리가 큼

□ 아베노믹스의 과제와 한계*

- (아베노믹스 시동) 지난 9월 26일 취임한 아베 총리의 경제 철학인 아베노믹스는 개방과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방과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개방과 기술 혁신을 통한 고성장’ 전략 추진
 - 개방을 통한 성장: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의한 무역자유화와 對日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
 -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IT와 로봇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전략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차세대 성장 발판을 마련
 - (재도전 지원) 경쟁에 기초한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므로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재도전 사회’ 구축을 추진
- (성공 조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충, 신중한 금융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함
 - (재원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 등 세출 삭감 이외의 재원 확충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신중한 금융정책) 아베노믹스의 성장 중시 전략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의도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일본은행과의 정책 협의를 통한 신중한 금융정책 추진이 요구됨
- (과제와 한계) 다양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내각이 정치·안보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 분야를 해결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당면 과제) 고이즈미 정부에서 완결되지 못한 재정적자, 연금개혁, 양극화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음
 - (내각의 한계) 아베 내각은 정치인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에 치중할 가능성이 큼

* 이 글은 『ECONOMIC REVIEW』(2006.10.1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카산드라의 예언

‘카산드라의 예언’이란 예지력은 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비관적인 예언자를 말한다.

카산드라 공주는 트로이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딸로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 미녀들 중 하나이다. 어느날 태양의 신이자 예언의 신인 아폴론의 구애를 받는다 그녀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달라고 조른다. 사랑에 눈이 먼 아폴론은 그녀에게 신만이가질 수 있었던 예언 능력을 선사한다. 그런데 그녀는 예언 능력을 받고 나서도 정작 몸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아폴론은 그럼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달라고 말하고, 키스하는 동안 그녀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앗아 버린다. 결국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어서 그녀의 예지력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이 카산드라의 예언이자 비극이다.

이후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스 군이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를 가져왔을 때, 카산드라는 목마를 성안에 들여 놓으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의 예언대로 트로이는 멸망한다.

자신의 진실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참 큰 고통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통찰력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부하가 아무도 없다면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좋은 친구는 항상 우리에게,
내가 특별하다는 것과 그 이유를 알게 해준다.”

- 패티 스템플 -